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명 및 직 위	권인숙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박윤정 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영택 연구위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윤지소 부연구위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출장기간	1) 원장 외 국제센터 3인: 2019. 11. 26. (화) - 2019. 11. 30.(토) [4박 5일] 2) 정책연구실 3인: 2019. 11. 27. (수) - 2019. 11. 30.(토) [3박 4일]			
출장지	태국 방콕			
출장목적	북경+25 아태지역 회의 내 본원 주최 부대행사(제11차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및 네트워킹 구축			
경비부담	본원 부담 ₩ 16,700,000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 북경+25 아태지역 회의 참석 • 아태지역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본원 국제협력 외연 확장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 UNESCAP 지역회의
참가 및 부대행사(제11차 아태포럼) 개최를 위한
태국 출장

출장 복명서

2019. 12.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

1

출장 개요

□ 기간:

1) 2019. 11. 26(화) - 11. 30.(토) [4박 5일]

- 권인숙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박윤정 연구원(4인)

2) 2019. 11. 27(수) - 11. 30.(토) [3박 4일]

- 김경희 선임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윤지소 부연구위원(3인)

□ 장소: 태국 방콕

□ 출장자 및 역할:

<출장자 역할 분담표>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권인숙	본원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부대행사 참석 및 개회사 -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개최 (UNFPA 아태지역사무소장,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부소장, UNESCAP 젠더전문관 등) - 일반 세션 및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수행 총괄 - 본원 주최 부대행사 운영 총괄 -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총괄 - 일반 세션 및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김정수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부대행사(side event) 운영 주무 - UN Women과 UNESCAP 과 부대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 회의 및 후속 점검 회의 개최 - 일반 세션 및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박윤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수행 주무 - 본원 개최 부대행사 진행 지원 -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진행 - 일반 세션 및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행사 발표: 한국의 성주류화 정책 - 일반 세션 및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참석 - 아태지역 성주류화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김영택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행사 발표: 한국의 여성보건 정책 - 일반 세션 및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참석 - 아태지역 여성 보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윤지소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부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행사 발표: 한국의 여성폭력 정책 - 일반 세션 및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참석 - 아태지역 폭력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 출장배경:

- 가.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수립 25주년이자, UN 안보리결의 1325호 수립의 20주년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5주년인 기념비적인 해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대비해 금년부터 글로벌 차원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나. 북경 25주년 준비를 위해 2018년 채택된 유엔 경제사회위원회(ECOSOC) 결의안(E/CN.6/2018/L.6 및 E/CN.6/2018/L.7)에 따라 금년도에는 국가별 및 지역별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5월까지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취합되고, 2019년 말 5개 지역 검토회의 개최 예정임.
- 다. 아태지역의 경우,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UNESCAP)이 이행검토를 총괄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회의가 2019년 11월 27일 부터 11월 29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임.
- 라. 상기 이행검토 회의와 관련하여, 2018년 11월 Kaveh Zahedi(UNESCAP 부총재)이 본원에 방문하여 기관장 면담 시 부대행사 개최 등에 대한 협력제안이 이루어졌음.
- 마. 이에 본원은 아태지역 북경 25주년 이행검토 회의를 대비하여 본원 연구적립금 과제로 「글로벌 여성의제의 국내이행 점검」 과제를 수행하였고, 글로벌 여성의제의 한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분야를 파악함.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태지역 이행점검 회의에서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의 경험에 대해 아태지역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계획을 추진하여 왔음.
- 바. 본 부대행사는 특별히 본원이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분야의 젠더 논의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제11차 개발과 젠더와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the 11th Asia-Pacific Forum on Development and Gender)』 과 겸하여 개최하고자 함.

□ 출장목적:

- 가. 북경+25 아태지역 회의 내 본원 주최 부대행사(제11차 아태포럼) 개최를 통한 본원 연구 성과 확산
- 나. 아태지역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및 네트워킹을 통한 본원 국제협력 외연 확장
- 다. 북경+25 아태지역 본 회의 및 다양한 여성 의제 분야의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11/26 (화)	○ 출국: 권인숙 원장, 장은하 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박윤정 연구원 (총 4인) (KE 651 인천 17:20 → 방콕 21:30)		인천 ⇒ 방콕
11/27 (수)	오전	○ 본 회의(개회식 및 메인 세션) 참석 ○ 몽골 국가양성평등위원회 사무총장과의 고위급 간담회 ○ 국내 시민사회 참석자와의 오찬	방콕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FPA 아태지역사무소장과의 고위급 간담회 ○ UN Women 및 UNESACP과 함께 부대행사(제11차 아태개발협력포럼) 개최 사전점검 회의 ○ 한국 개발협력 실무자와의 업무협력 회의 	인천 ⇒ 방콕
		○ 출국: 김경희 선임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윤지소 부연구위원 (총 3인) (KE 651 17:20 → 방콕 21:30)	
11/28 (목)	오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회의 참석 ○ UNESCAP 젠더 전문가 및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부소장과의 고위급 간담회 ○ 본원 주최 부대행사(제11차 아태개발협력포럼) 최종 점검 및 개최 	방콕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회의 및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 ○ 미얀마 젠더전문가와의 실무협의회 	
11/29 (금)	오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세션, 부대행사(side event) 참석 및 아태지역 전문가 네트워킹 ○ UNFPA 아태지역사무소 젠더전문관과의 실무협의회 ○ 미얀마 사회복지부 장관과의 실무협의회 	방콕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B 젠더총괄 및 몽골 ADB 젠더전문가와의 실무협의회 ○ 부대행사 평가 및 북경 +25 관련 후속 과제 개발 연구진 회의 개최 ○ 여가부 장관 및 한국 여성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11/30 (토)		○ 전원 귀국(총 7인) (KE 660 방콕 09:40 → 인천 17:20)	방콕 ⇒ 인천

2

제11차 아태개발협력포럼

- 일시: 2019. 11. 28.(목), 12:00~13:50
- 주제: 성평등과 온라인 여성폭력: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Gender Equality and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Experiences from South Korea and Asia)
- 장소: 태국 방콕 UN 컨퍼런스 센터(UNCC) Room No. CR 3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N Women
- 후원: 여성가족부
- 세부일정

일시	구분
12:00-12:30 (식사 포함)	개회사 사회: Anna-Karin Jafors, UN Women 아태지역 부소장 - 이적옥 (여성가족부 장관) -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2:30-13:10	세션1: 아태지역에서의 성평등 달성: 한국의 성과 및 도전과제 사회: Anna-Karin Jafors, UN Women 아태지역 부소장 - 여성과 건강 (김영택 연구위원) - 성주류화 분야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여성과 폭력 분야 (윤지소 부연구위원)
13:10-13:35	세션2: 연결된 세상에서 온라인 상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 사회: Anna-Karin Jafors, UN Women 아태지역 부소장 - Zarizana Abdul Aziz (Due Diligence Project 소장) - Sandy Kunvatanagarn (페이스북 태국지사 공공정책 매니저)
13:35-13:50	질의응답 및 폐회

세션 1

아태지역에서의 성평등 달성: 한국의 성과 및 도전과제

□ 여성과 건강 분야 (김영택 연구위원)

- 한국은 여성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의료서비스지원, 제왕절개술 남용방지, 난임 불임지원, 여성근로자건강 인프라 구축,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하였음. 대표적으로 1973년 모자보건법이 모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이루고자 제정됨. 또한,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여성건강이슈는 여성에게만 발생하거나 여성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증상들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는 다발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미흡함. 또한, 모성건강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일반여성건강 관련정책은 정책비중 및 이행실적은 미약함.

- 향후 과제로는 성관계가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소녀의 성교육, 성 전파성 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한국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으나 고학년이 될수록 성교육 빈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최근에는 낙태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윤리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조사 자료를 활용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함.

□ 성주류화 분야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주류화 주요 정책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음. 한국은 2000년대 중부터 한국의 공공정책 성주류화가 제도화되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이라는 4개 정책을 도구화하여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추진해왔음. 성별영향평가(2005)와 성인지 예산제도(2009)를 시행하고, 2011년에는 독립된 「성별영향평가법」을 제정하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주류화 정책 간 상호연결에 대한 근거규정을 통해 법적 토대를 마련함.
- 한국은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구축하면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의 법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크며, 성주류화 추진 기구의 권한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성주류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가 사무국이 되도록 해 동 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기초한 성과관리와 정부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8년도부터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 포함시킨 부처별 성평등 목표 및 성 주류화 계획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및 인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 마지막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성주류화 모니터링 활성화 및 거버넌스의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여성과 폭력 분야 (윤지소 부연구위원)

- 한국의 지난 10년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친고죄 폐지,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 여성폭력방지법의 제정 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사이버 공간 폭력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적 성과가 존재함. 2019년에는 여성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을 포괄하여 여성폭력 방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법/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한계 및 개선과제가 존재함.
- 2013년 이후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범죄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율이 증가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및 피해자의 입증책임 문제, 신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보완, 미투운동의 제도적 성과화 등의 향후 과제가 남아있음.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은 해당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모호해 가해자 처벌이 힘든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매매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 및 온라인 성매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세션 2

연결된 세상에서 온라인 상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

□ 여성과 온라인 성폭력 (Zarizana Abdul Aziz, Due Diligence Project 소장)

- ICT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서는 ICT사용에 있어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여성과 여아의 임파워먼트 문제와 직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I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온라인 폭력의 양상 역시 늘어나고 있음. 최근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UN Women에서 실시한 온라인 상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는 온라인 상 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운동이 활발한 국가들의 현황을 보고 있음 (대상국: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 온라인 폭력은 구조적인 차별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문화적인 관념이 온라인 상에서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특징이 있음. 온라인 폭력은 여성에게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와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제한하고 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라인 폭력을 거의 제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줄이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현재로서는 온라인 폭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온라인 공간이 개인적인 영역인지 공적인 영역인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음. 국가마다 온라인 공간과 온라인 폭력을 정의하는 방법도 달라 각기 다른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온라인 폭력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 온라인 성폭력에 대응하는 페이스북 (Sandy Kunvatanagarn, 페이스북 태국지사 공공정책 매니저)

- 페이스북은 미션 중심의 회사임. 페이스북은 개개인인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온라인 상에서 개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따라서 제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온라인 경험을 통제하고 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도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방안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
- ①파트너십; ②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 ③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개발; ④자원(서비스 제공); ⑤사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 ①파트너십: 온라인 성폭력,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의 기관과 협업하여 정책 및 도구개발, 시스템 자문 등을 받고 있음.
- ②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 페이스북은 그래픽 이미지부터 증오 표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준

과 정책에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함. 40개 이상의 언어로 공개되어 있음.

- ③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개발: 페이스북은 개인 사용자가 자신들이 보는 게시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음. (예: 잠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용자나, 그 외에도 개인의 온라인 경험에 원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④자원(서비스 제공): 24시간 고객센터 센터(예: 사용자가 특정 사용자 혹은 게시물을 신고할 경우 24시간 대기 중인 페이스북 고객센터 센터에서 사용자/게시물 검토 후 즉각 대응).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게시물(사진 혹은 글)을 올렸을 때의 대응방안을 정리한 안내서 제공 등.
- ⑤사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 질의응답

- 한국이 성주류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원인:

성주류화 이행을 위한 각각의 조치와 그에 따른 개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한국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법의 시행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함.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성별영향 분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분석평가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이 외에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데이터, 성인지교육 등 성주류화를 위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각 정부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의 연구에서 사회가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성차별 발언’에 대한 정의:

앞선 언급한 연구에서는 1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성차별 발언을 정의하고자 하였는데, 성차별 발언의 특정 요소로는 개인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모욕, 의도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포함함. 이를 카테고리화 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제11차 아태개발협력포럼

3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을 위한 UNESCAP 지역회의

□ 일시 및 장소: 2019. 11. 27.(수) ~ 11.29.(금), 태국 방콕 UN 컨퍼런스센터

□ 본 회의 일정표

첫째 날 (11/27, 수)		
09:00-10:00	ESCAP Hall	개회식 (개회사, 회의 의장단 선거, 의제 채택)
10:10-12:00	ESCAP Hall	SDG 맥락 속에서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아태지역 진전상황, 도전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 검토
14:00-17:00	ESCAP Hall	SDG 맥락 속에서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아태지역 진전상황, 도전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 검토(계속)
둘째 날 (11/28, 목)		
09:00-10:25	Conference Room 1	패널 토론 1: 포용적 발전, 공유된 번영 및 관철은 일자리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0:35-12:00	Conference Room 1	패널토론 2: 폭력, 편견(stigma), 고정관념(stereotype)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2:00-14:00		점심 식사 및 본원 부대행사* (* 본원 부대행사 세부내용은 이전 섹션에서 기 설명함.)
14:00-15:20	Conference Room 1	패널토론 3: 책무성, 참여 및 성인지적 제도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5:20-17:00	Conference Room 1	패널토론 4: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구축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및 기타 이슈
셋째 날 (11/29, 금)		
11:00-12:30	Conference Room 2	특별세션: “지금 이 시간: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과 혁신적 기금 마련”
14:30-17:30	Conference Room 1	결과문서 및 회의 종료보고서 채택

□ 주요내용 정리¹⁾

○ SDG 맥락 속에서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아태지역 진전상황, 도전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 검토: 국별 발언 (11/27, 수)

-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 회의 첫째날에는 각국이 SDG 맥락 속에서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 및 도전과제를 국별 대표가 발언함. 한국을 비롯하여 아태지역 41개국의 대표가 각국의 성평등 진전사항과 주요 이슈들을 발표함.
- 여러 국가가 아태지역에서의 북경행동강령 및 성평등/여성역량강화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및 UN안보리 결의안 1325 등에 대한 지원 의사를 재표명하기도 함.
- 각국은 성주류화 및 북경행동강령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개혁, 정책, 주요 행동계획,

1) 내용의 완결성을 위해 본원 참가자의 필기내용과 함께, UNESCAP 북경+25 이행점검 회의 결과보고서 초안(draft report, 문서번호: ESCAP/MCBR/2019/L.3)을 중심으로 작성함.

제도적 매커니즘 등을 소개함. 일부 국가는 노약자, 농촌 및 이주 여성, 난민 여성, 여성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하고, 한정된 예산, 성별분리 데이터의 부족,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유해한 관습과 더불어 기후변화 등을 성평 등 달성을 위한 도전과제로서 지적함.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해 각국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관철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을 소개함. 일부 국가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들을 위한 소액금융 대출 및 여성의 경력유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또 일부 국가는 공공 육아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대를 통해 여성의 무보수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재분배를 노력해오고 있음. 또한, 여성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의 사회보호 체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여성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여성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며, 주로 농업 및 수공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슈 역시 제기됨.
- 여성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쳐 저렴하고 질 높은 보건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부 국가는 해당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성재생산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피임 수요에 대응 등의 노력을 소개하기도 함. 낙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가 안전한 낙태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는 가운데, 낙태가 가족계획의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존재함.
- 여성의 교육과 관련해서 아태지역 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여아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의 제공 및 조건부 현금이전 지원, 이공계 전공 등 다양한 여성의 직업선택 및 경력 지원에 대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소개됨.
- 여성의 폭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낙인(stigma) 및 유해한 관습(조혼 및 여성성기절제(FGM) 등)에 대한 이슈가 함께 제시되었으며, 몇몇 국가들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노력을 소개함. 또한, 여성폭력 철폐를 위해 의식제고 및 남성의 참여 도모, 관련 데이터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 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온라인 성희롱 이슈, 인신매매 등의 문제가 제기됨.
- 그 외에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리더십 역량 함양,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 노력 등이 소개되었고, 성평등 관련 논의에 있어서 성별분리 통계 구축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함 역시 강조됨. 또한, 분쟁지역에서의 여성 보호 및 참여, 기후변화와 여성 등도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음.
- 한국 정부 역시 본 세션에서 한국의 성평등 제도 및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함.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운영 노력, 돌봄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의 정책노력을 소개하였음.

○ 패널 토론 1: 포용적 발전, 공유된 번영 및 관철은 일자리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1/28, 목)

- 두 번째 날 첫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관련해 선사례와 해결방

안을 논의함. 본 패널토론은 UNESCAP의 사회개발국장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으며, 사모아 여성·공동체·사회개발부 장관, Impact Investment Exchange Asia 재단의 창립자겸 대표, 인도의 Telengana주의 산업·정보기술 주관기관 주요인사, 말레이시아 소재 동남아시아 여성기업인 협회 관계자, 지속가능농촌개발을 위한 아시아농민협회의 회장이 패널로 참여함.

- 패널들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여성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창업 지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 사용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선사례에 대해 논의함. 혁신적인 사회담보대출(social bonds)을 통한 잠재적 민간자원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여성중심의 혁신 허브 구축 및 여성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강조되었음. 또한, 여성의 잠재력 발휘를 위해 유연근무제도의 필요성 역시 강조됨.
- 첫 번째 패널로서 사모사 사례에서는 여성부의 협력 하에 여성의 문맹률 감소와 교육 수준 제고 등 여성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소자본 자영업 육성(small business incubator) 방안이 제시되었음. 또 다른 패널인 인도 패널은 기업이나 자영업 운영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여성 인재 개발 대한 노력 사례를 공유함. 동남아시아 기업인협회 패널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함께 자영업 육성의 연계로 여성 기업인 확충을 도모하는 사례를 소개함.
- 또한, 여성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사례로 가정에서의 아동 양육 돌봄 사업, 여성농업인 대상 금융지원 제도 등이 제시되었음. 이와 더불어 여성 경제 역량 강화 사업에서 공여국의 협력과 UN의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이 외에도 여성고용 제고, 성별 임금격차 완화, 공식/비공식부문 경제에서의 여성차별 철폐 등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법과 액션플랜, 인센티브 등이 논의되었으며, 각국 정부의 여성의 창업 지원 정책 및 소액금융 등의 여성금융지원 노력 필요성이 강조됨. 한편 시민사회 측에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적 규제, 무보수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및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호의 보장, 성별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강조했으며, 특히, 비공식부문, 가사 내 노동자, 이주민/난민여성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함.

○ 패널토론 2: 폭력, 낙인찍기(stigma), 고정관념(stereotype)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1/28, 목)

- 두 번째 날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낙인찍기(stigma), 고정관념(stereotype)과 관련된 아태지역의 이슈들을 논의함. 본 패널토론은 네팔 CEDAW 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 하에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성평등 부국장, 호주 OurWatch 정책평가국장, 카자흐스탄 여성운동가이자 Kaz-Fem 그룹의 창립자가 패널로 참여함.
- 패널들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선사례와 함께, 여성 폭력과 관련된 주요 지역 동향, 여성 폭력 해결에 대한 현재의 과제, 직장 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과 사회 규범을 변화시키는 젊은이들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함. 현재 성희롱 및 성폭력은 학교, 직장 등 공공장소에서 만연한 실정으로, 패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전 세계 여성의 과반수가 물리적/성적 폭력의 피해자인 현실을 지적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사회경제적 참여 저하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첫 번째 패널로서 베트남 사례 공유를 통해 정부의 각 부처(경찰, 보건부 등) 및 정부-시민사회 연계의 중요성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남성의 참여를 강조함. 두 번째 패널에서는 각종 지표를 이용한 젠더 폭력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됨. 특히, 우리 사회가 폭력 관련 정책 형성이라는 과제에 매몰되어 있으나, 실제로 데이터는 정책안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마지막 패널인 청년활동가는 일터에서 젊은 여성이 겪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사례를 공유함.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당장 직장을 잃을 것을, 혹은 장기적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나서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향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및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을 제안함.
- 본 세션에서는 또한 각국의 관련 선사례 정책 및 남성 및 남녀를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소개됨. 시민사회 측에서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가 보다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동의의 부재(absence of consent)”로 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회복적 사법(restorative) 및 피해자 지원, UN 안보리 결의안 1325의 보장 등을 강조함.

○ 패널토론 3: 책무성, 참여 및 성인지적 제도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11/28, 목)

- 두 번째 날 세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책무성있는 성인지적 제도 촉진을 위한 혁신적인 향후 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함. 성평등의 주요 도전과제 및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기획, 이행 및 평가 중인 미래지향적인 이니셔티브(정책노력), 해당 혁신적 이니셔티브(정책)이 성평등 진전에 미치는/기대되는 영향력, 현재 논의 중인 미래지향적 이니셔티브(정책)의 기획, 이행 및 실제적/기대성과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미치는 영향(기여) 등이 공유됨. UNESCAP의 성평등·사회포용국장의 사회 하에 이란 여성·가족부위원장, 한국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캄보디아 여성부 장관, Paima Alumni Trust의 창립자 겸 전무가 패널로 참여함.
- 각 패널들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성주류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공유함. 성주류화의 제도화를 위해 정치적 의지, 여성 리더십 증진,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들과의 지원 및 협력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성인지예산, 성인지적 기획 및 모니터링/평가와 이를 위한 성평등지표 등이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진전을 견인·기획하고 모니터링 하는 도구라는 점이 강조됨.
- 패널 이외의 각국 대표들 역시 발언을 통해 성주류화를 위한 각국의 선사례를 발표함.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민간부문이나 미디어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의 필요성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함. 한편, 시민사회는 각국 정부의 책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 생애에 걸친 여성에

-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여성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을 촉구함.
- 이와 더불어 젠더 거버넌스의 창출 및 성주류화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평등 지수 간의 상호 연계성 제고 역시 중요함이 강조됨. 또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극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디지털 사회에서의 새로운 성차별 및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이를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었음. 또한,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의사결정자이자 협상가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됨.

○ **패널토론 4: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구축 관련 아태지역 성평등 진전 및 기타 이슈 (11/28, 목)**

- 두 번째 날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환경보전, 기후변화와 관련된 성평등 이슈가 논의됨.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부소장의 사회 하에 International Centre for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의 부소장 겸 기후변화 최빈국대학컨소시엄 프로그램 소장, 피지 여성·아동·빈곤감축부 내 연구소장 대리,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 개발관리관, 한국의 Green Climate Fund의 젠더사회전문관, 베트남 환경·공동체연구센터 소장이 패널로 참여함.
- 패널들은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및 회복력 구축에 있어서 여성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함. 예를 들면, 기후변화 관련 액션플랜에 성주류화를 도모하거나, 성평등 정책에 기후주류화를 통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 높은 데이터의 필요성을 제기함. 환경관리에 소외계층의 여성의 참여를 지원시켜 그들 자신의 삶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됨. 이와 더불어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성주류화 역시 주요하게 논의됨.
- 이와 더불어 재해 이후 젠더기반 폭력 및 인신매매 등이 급증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지역공동체 및 관계자들의 인식제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기경보 시스템, 가족 저금에의 접근성, 금융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을 통해 여성들이 기후 및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일부 국별 대표들은 재난위기 감축 및 회복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수요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성·재생산 보건과도 연결되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함. 또한, 발표된 젠더분석 결과, 여성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거의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협력을 위한 여성 및 여아의 기여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특별세션: “지금 이 시간: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과 혁신적 기금 마련” (11/29, 금)**

- 본 특별세션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혁신적 기금마련을 위한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ADB 등의 선사례를 공유함. 혁신적인 성평등 기금 마련을 위해 젠더분석 및 성인지적 지표 마련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됨.

- 금융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꼭 유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동시에 금융에 대한 이해 및 역량(financial literacy), 디지털 기술 사용 능력 등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ADB 사례의 경우, 상업은행과도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인들에게 용자를 제공할 때 감수해야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은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gender audit을 지원하기도 한다는 점이 공유됨. 또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동남아 지역까지 확산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공유함.
- 동시에 남성 젠더챔피언을 통한 노력도 필요함. “He for She” 운동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젠더 챔피언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성임원 육성을 위해 여성들의 자신감 향상을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한국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역시 본 특별세션의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ODA 공여 현황을 공유함.

○ 결과문서 채택 (11/29. 금)

- 각국 대표단의 협상 끝에 회의 셋째날 오후 결과문서가 채택됨. 결과문서(ESCAP/MCBR/2019/L.4/Rev.1)는 서문과 더불어, 1) 평등하고 포용적인 개발과 공유된 번영·관찰은 일자리, 2) 폭력·낙인·유해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자유, 3) 참여, 사회적 대화와 책무성 및 성평등 국가전담부처, 4)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5)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구축, 6) 데이터 및 통계, 7) 파트너십과 지역적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²⁾



북경+25 아태지역 이행점검을 위한 UNESCAP 지역회의

2) 채택된 선언문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접근 가능함: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Draft%20Outcome.pdf>

4

기관장 고위급 간담회

1. 몽골 국가양성평등위원회 사무총장, 본원 기관장과의 고위급 간담회

□ 일시: 2019. 11. 27.(수), 10:30~11:00, UN 컨퍼런스 센터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Enkhbayar T (몽골 국가양성평등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NCGE) 사무총장), Tsolmon Begzsuren (몽골 ADB 젠더전문관) 외

○ 본원 참가자: 권인숙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박윤정 연구원

□ 주요내용

- 현재 몽골 국가양성평등위원회는 사회보장부 산하에서 총리실로 이관된 이후 몽골 성평등 정책, 프로그램과 특별 조치들을 기획, 이행,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9년도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 5월에는 UNESCAP의 75th 회기에서 “양성평등과 SDG 5번(젠더)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여기에는 몽골 외교부 장관과, Armida Alisjahbana UNESCAP 총재도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임. 8월에는 국가젠더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UNFPA와 스위스 개발원조청과 협력하여 GBV관련 젠더연수를 실시하였음.



몽골 국가양성평등위원회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2. 한국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 일시: 2019. 11. 27.(수), 12:00~13:00, UN 컨퍼런스 센터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연구센터장)

○ 본원 참가자: 권인숙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박윤정 연구원

□ 주요내용

- 한국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모두 2020년 CSW 참석 등 북경행동강령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특히 멕시코(5월), 프랑스(7월), UN 총회(9월) 등의 글로벌 주요 회의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할 예정임. 특히 시민단체(CSO)들은 이러한 국제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회의는 CSO에게 중요한 로비의 장소로 작용함. 이번 회의의 경우, 최종 합의문을 비공개 세션으로 작성하는 데에 대해 CSO들의 불만이 존재함.
- 특히 여성 건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급여, 비급여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존재함. 예를 들면, 남성 유방 축소술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세대 경구 피임약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음.
- 개발협력내 국제보건활동에서도 젠더 관점을 도입해야 하나, 한국 정부의 보건 ODA사업에서는 성평등관점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임산부 및 신생아 사업, 에이즈 감염 여성 지원 등 전통적 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3. UNFPA 아태지역 사무소장, 본원 기관장과의 고위급 간담회

□ 일시: 2019. 11. 27.(수), 13:30~14:30, UNFPA 아태지역사무소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Bjorn Andersson (UNFPA 아태지역 사무소장), Ingird FitzGerald (UNFPA 아태지역 젠더전문관)

○ 본원 참가자: 권인숙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박윤정 연구원

□ 주요내용

○ 본원 소개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UNFPA 주요 분야 소개

- UNFPA는 현재 젠더기반폭력, 남아선호사상 철폐,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대리모 등의 주요이슈에 대응하며 활동하고 있음. 젠더기반폭력의 경우, 회원국과 협업하여

젠더기반폭력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 철폐의 경우, 노르웨이 정부에서 UNFPA 아태지역사무소에 편당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업을 희망함. 저출산의 경우,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동을 보이고 있음.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으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아태지역 역학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음.



UNFPA 아태지역사무소장과의 간담회

4. UNESCAP 젠더 전문관 및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부소장과 본원 기관장 고위급 간담회

□ 일시: 2019. 11. 28.(목), 12:00~12:30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Cai Cai (UNESCAP 젠더전문관), Anna-Karin Jatfors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부소장)

○ 본원 참가자: 권인숙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주요내용

- 본원 기관장은 UNESCAP 젠더전문관에게 이번 부대행사 개최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고, 내년도 UNESCAP의 북경25주년 관련 공유함. UNESCAP은 아태지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SDGs 모니터링을 주관하는 기구이며 따라서 관련 지역별 회의를 주최하거나 긴밀히 관련하여 팔로우업 할 예정임.
- 본원 기관장은 또한 2016년 본원과 MOU를 체결한 후, 공동연구, 공동회의 주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는 UN Women에게 감사를 표명함. 이러한 협력 심화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여성정책 성과들이 확산되고, 개도국과의 협력이 공고화 되기를 희망함.
- UNESCAP과 UN Women 모두 이번 본원과의 협력에 대해 큰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아태지역 여성정책을 리딩하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원과 지속적인 협력의사를 타진함.



UNESCAP 젠더 전문가 및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부소장과의 고위급 간담회

5.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 및 여성계 지도자들과의 고위급 간담회

□ 일시: 2019. 11. 29.(금), 18:00~20:00, 태국 방콕 로얄프린세스 란루앙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채명숙 (여성가족부 과장) 외 2인
- 본원 참가자: 권인숙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박윤정 연구원,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영택 연구위원, 윤지소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 부대행사(제11차 아태개발협력포럼) 관련

- 미얀여가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 졌다는 데에 대해 동의함. 특히 유엔 여성관련 회의에서나, 북경행동 이행 회의에서 통상 아시아 지역의 사례가 많이 공유되지 않았는데, 이번 부대행사(제11차 아태개발협력포럼)에서 한국의 사례가 공유되고 전파되어 큰 의미가 있었음.
- UN Women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지정기여금 사업으로 진행한 연구인데, 처음 발표한 여성정책연구원의 내용과 잘 이어지게 되어 더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함. 아울러 한국의 사례만 발표된 것이 아니라, 아태지역의 사례가 함께 공유되어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사료됨.
- 여성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달성한 성과에 비해 세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성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에 기인함. 따라서 이번 부대행사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한국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될 필요가 있음.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 및 여성계 지도자들과의 고위급 간담회

5

실무진 업무협력 회의

1. 한국 개발협력 실무자와의 업무협력 회의

□ 일시: 2019. 11. 27 (수), 19:00~20:30, 방콕 소재 식당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송지홍 (인도지원 팀장), 권정화 (인도지원팀 과장), 배주현 (캄보디아 코디네이터), 박정은 (미얀마 코디네이터)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 (젠더과 개발협력 관련 국제동향 공유) 1) 북경 25주년을 맞아 12개 분야 중 개발협력 사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의 여성 현황을 공유함. 2) 현재 국내 인도적 지원 및 난민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젠더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실무자 급에서 여성연합 국제센터와 함께 젠더기반폭력(GBV)을 포함하는 다양한 젠더 주제의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동향 공유) 현재 국제사회는 난민지원에 있어서 공동의 협력을 기울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이슈로는 12월에 개최될 글로벌난민회의(GRF)에 외교부, 코이카 등이 적극 참여할 예정임. 글로벌 난민을 다룰 때 여성 난민 그리고 GBV 이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위한 연구와 사업 실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실정임.



한국 개발협력 실무자와의 업무협력 회의

2. Kyawt Kyawt Khaing 미얀마 젠더전문가와의 실무협의회

□ 일시: 2019. 11. 28. (목), 15:00~16:00, UN 회의장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Kyawt Kyawt Khaing (미얀마 Gender Equality Network 운영위원 및 본원 2013 초청연수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주요내용

- (미얀마 여성현황 업데이트) 최근 미얀마 내 젠더 현황에 대해 공유함.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미얀마의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법률인데, 2014년도에 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임. 최근에 주무부처인 미얀마 사회복지부 장관과 임원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장관이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조만간 법안이 통과되면 이행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본원 초청연수 성과) 본원 초청연수에 참가하였고, 당시 여성정치참여분야 전문가였던 Pan Thein의 대표는 미얀마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임. 또한, 당시 초청연수에 참석하였던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Lena Maryana Mukti 와는 초청연수 이후 미얀마 - 인도네시아 간 수차례 상호방문을 통해 여성정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함.

3. UNFPA 아태지역사무소 젠더전문관과의 실무협의회

□ 일시: 2019. 11. 29 (금), 9:30~10:30, UN 회의장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Ingrid FitzGerald (UNFPA 아태지역사무소 젠더전문관)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주요내용

- 2017년도 UNFPA의 Gender-based Sex Selection 관련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해 준 데에 대한 감사와, 사업이 성사되지 못한 데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함.
- 2020년도 UNFPA는 젠더 분야에서 4가지 주력 사업 분야를 선정함: ①남아선호(Gender Based Sex Selection, GBSS), ②폭력실태조사 방법론, ③인도적 지원에서의 젠더기반폭력, ④저출산 분야인데, 이 분야들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말에 완성될 예정이며, 이를 본원과 공유 후 협력하기를 희망함



UNFPA 아태지역사무소 젠더전문관과의 실무협의회

4. 미얀마 사회복지부 장관과의 실무협의회

□ 일시: 2019. 11. 29. (금), 10:30~11:30, UN 회의장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Dr.Win Myat Aye (미얀마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장관), Dr. San San Aye(사회복지국장) 외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 (본원의 ODA 사업) 본원이 2013~2017년 동안 미얀마 사회복지부와 진행해 온 초청연수와 공동연구 등 ODA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성과에 대해 설명함. 2013년도부터 미얀마 사회복지부에서 연간 약 5명의 공무원들이 본원이 진행한 초청연수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공동연구도 수행한 바 있음.
- (본원의 미얀마 ODA 제안서) 미얀마 여성에 대한 폭력법안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주제로 본원이 ODA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리고, 이러한 제안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미얀마 정부측에서도 한국의 한국국제협력단과 주 양곤 주재 한국 대사관에 미얀마의 수요를 적극 알려 줄 것을 요청함.
- 사회복지부 장관님은 본원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함.



미얀마 사회복지부 장관과의 실무협의회

5. ADB 젠더총괄 및 몽골 ADB 젠더전문가와의 실무협의회

□ 일시: 2019. 11. 29. (금), 12:30~13:30, UN 회의장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Sonomi Tanaka (ADB 본부 젠더총괄), Tsolmon Begzsuren (ADB 몽골사무소 젠더 전문관)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정수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 현재 ADB 본부 젠더총괄인 Sonomi Tanaka와 몽골 ADB 직원이자 현재 필리핀 본부로 파견받은 Tsolmon과 아시아 지역서의 ADB의 젠더 관련 사업과 동향을 파악함.
- 2019년 ADB는 여성 기업가를 위한 스마트 재무조달(financing), 여성기업가 리더십, 기후 변화와 젠더, 도시교통운영에 있어서의 성주류화, 디지털 변화에 있어서의 성평등, 에너지 섹터에서의 여성참여, STEM 분야의 여성참여 증진 등의 혁신적인 주제를 가지고, 라오스, 몽골,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의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을 하였음. ADB는 조직 내에서 젠더와 기후변화는 두 우선 분야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큰 회의를 기획 중임.
- 한국의 유상원조 ODA에서도 성주류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ADB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력을 기대함.



ADB 젠더총괄 및 몽골 ADB 젠더전문가와 실무협의회